

# ‘특급’ 계보 이은 ‘괴물’

〈박찬호〉

〈류현진〉

## ■ 완벽했던 5월

2일	샌프란시스코	승	8이닝 1실점
8일	애들랜타	완봉	9이닝 무실점
13일	워싱턴	승	8이닝 무실점
20일	신시내티	승	7이닝 무실점
26일	피츠버그	승	6이닝 2실점
31일	메츠	승	7과3분의2이닝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실질적인 에이스 류현진(32)이 박찬호(46)에 이어 한국인 투수로는 두 번째로 내셔널리그(NL) 이달의 투수에 선정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5월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양대리그 '이달의 선수'와 '이달의 투수'를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류현진은 예상대로 NL 5월의 투수로 뽑혔다. NL 이달의 선수로는 피츠버그 파이리츠 조시 벨이 뽑혔고, 아메리칸리그(AL) 이달의 선수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라파엘 디버스에게 돌아갔다. AL 이달의 투수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루카스 지올리토가 받았다.

류현진은 지난달 6경기에 선발 등판해 5승 무패, 탈삼진 36개, 평균자책점 0.59라는 눈부신 성적을 올렸다. 또 월간 투구 이닝(45%이닝), 평균자책점도 모두 1위를 달렸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류현진이 홈런을 한 개도 맞지 않고 상대 타자들에게 안타 28개, 볼넷 3개만 허용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월간 5승 이상, 탈삼진 35개 이상, 그리고 평균자책점 0.60 이하로 던진 다저스의 4번째 투수라

## 류현진 MLB '5월의 투수상'

5승 무패·평균자책점 0.59

월간 투구 이닝·자책점 1위

박찬호 이어 21년만에 두번째

다승·평균자책점 '박' 앞서

류, 오늘 오전 애리조나전 9승 도전

는 내용도 곁들였다.

류현진 이전에 이런 세 항목을 충족한 투수는 페르난도 발렌수엘라(1981년 4월), 돈 드라이스테일(1968년 5월), 냅 루커(1908년 6월·1910년 9월)가 있다.

아울러 류현진은 2010년 우발도 히메네스 이후 9년 만에 선발 등판한 11경기 연속 2실점 이하로 던진 투수라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배경을 강조했다.

류현진은 다저스에서 뛰던 1998년 7월의 투수로 선정된 '코리안 특급' 박찬호에 이어 한국 투수로는

21년 만에 두 번째로 수상 계보를 이었다.

박찬호는 당시 6경기에 등판해 4승 무패, 평균자책점 1.05를 남겼다. 다승과 평균자책점 모두 박찬호보다 류현진이 더 낫다.

타자를 포함해 코리안 메이저리거가 이달의 선수 또는 이달의 투수로 뽑힌 건 박찬호,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에 이어 류현진이 세 번째다.

류현진은 또 아시아 투수로는 2014년 5월 다나카 마사히로(31·뉴욕 양키스) 이후 만 5년 만에 이상을 받았다. 다나카는 5승 1패, 평균자책점 1.88의 성적으로 아메리칸리그(AL) 5월의 투수가 됐다.

이달의 투수로 선정된 역대 아시아 투수는 박찬호(1998년 7월), 이라부 히데키(1999년 7월·1998년 5월), 노모 히데오(1996년 9월·1995년 6월), 다나카에 이어 류현진이 5번째다. 아울러 류현진의 수상은 아시아 투수 7번째 수상이다.

류현진은 2017년 7월 리치 힐에 이어 다저스 투수로는 22개월 만에 이달의 투수를 꿰찼다.

영광을 안은 류현진은 5일 오전 10시 40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애리조나 다

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시즌 9승 수확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 ■ 역대 아시아 출신 이달의 투수상 수상자

〈연합뉴스〉

류현진(LA 다저스)	다나카 마사히로 (뉴욕 양키스)	박찬호(LA 다저스)	이라부 히데키(뉴욕 양키스)	노모 히데오(LA 다저스)
2019년 5월 6경기 5승 무패	20014년 5월 6경기 5승 1패	1998년 7월 6경기 4승 1패	1998년 5월 6경기 4승 1패 (자책점 1.44)	1995년 6월 6경기 6승 무패 (자책점 0.89)
평균자책점 0.59	평균자책점 1.88	평균자책점 1.05	1999년 7월 6경기 4승 무패 (자책점 2.64)	1996년 9월 6경기 3승 1패 (자책점 2.03)

# 돼지띠 듀오, 황금돼지해 대활약

박찬호, 공·수서 종합무진  
복귀 첫 해 내야 핵심 선수 부상  
차명진, 지난주 키움전 첫 선발승  
피칭 안정...KIA 5선발 새 돌파구



'황금돼지해' 내야수 박찬호와 투수 차명진이 KIA 타이거즈의 복덩이가 됐다.

1995년생 돼지띠인 박찬호와 차명진은 2019년을 시작하면서 각각 "기회를 잡겠다", "아프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힌 적이 있다.

새해 인터뷰(광주일보 2019년 1월 3일 자 21면)를 통해 "황금 돼지해 복덩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유망주들은 KIA 팬들이 투타에서 가장 기대하는 젊은 피가 됐다.

"기사가 현실이 됐다"며 웃는 두 사람은 각각 내야와 선발진을 책임지고 있다.

박찬호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2019시즌 KIA의 최고 히트 상품이다.

소문났던 수비 실력에 타격 힘까지 더해지면서 '예비역' 박찬호는 복귀와 함께 내야 핵심 선수가 됐다.

자신의 주 포지션인 유격수는 물론 2루와 3루까지 깔끔하게 책임지는 박찬호는 올 시즌 데뷔 홈런까지 기록했다. 규정타석에 진입한 지난 5월 27일에는 타율 6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반전의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

공수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느라 최근 페이스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박찬호는 여전히 가장 기대하는 KIA 타자 중 한 명이다.

박찬호는 "지난주 밸런스가 다 깨졌다. 체력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풀타임을 뛰는 게 처음이라 뭐가 체력이 떨어진 것인지는 잘



차명진

모르겠다"며 "그래도 쉬었으니가 좋아질 것 같다. 주말 운동을 안 하면서 쉬었다"고 설명했다.

또 "잘 쉬면서 생각도 많이 했다. 경기장에서 보여 주겠다. 앞으로도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차명진은 KIA의 선발 고민을 지워줄 새로운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이달 부상과 군 복무로 부침의 시간을 보냈던 그는 지난 5월 16일 입단 6년 만에 KT를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그리고 세 번째 등판이었던 5월 24일 KT전에서는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다.

이 경기에서 승리투수에 아웃카운트 2개가 부족했던 차명진은 지난 30일 두 번째 선발 등판에서는 5이닝을 2피안타 3사사구 5탈삼진 1실점으로 책임졌고, 데뷔 첫 승을 품에 안았다.

차명진의 등장과 함께 KIA는 5선발 고민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첫 선발 등판 이후 "의미 없는 공들을 던지는 게



박찬호

아쉬웠다"고 이야기했던 차명진은 4일 "전 경기보다는 의미 없는 공이 적게 나온 게 좋아진 부분이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피하는 공이 아쉬웠다.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주자 나가고 하니 까 급해지고 그런 게 있었다. 찬호 덕분에 살았다"고 웃었다.

이날 박찬호는 좋은 수비를 잇달아 선보이면서 친구 차명진의 승리를 지켜줬다.

첫 선발 등판보다 이닝을 늘린 차명진은 구중도 늘려가고 있다.

차명진은 "등판 때마다 구중을 늘리고 있다. 앞서 커브, 슬라이더에 이어 포크볼을 던졌는데 지난 등판에서는 투심도 구사해봤다"며 "조금씩 변화구도 좋아지는 느낌이다. 다음 등판에서는 더 자신 있게 공을 던지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차명진은 5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세 번째 선발 등판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복귀 임박’ 백용환 “말 할 시간도 없어요”

## 덕아웃 T 특독

▲말할 시간도 없어요 = 오랜만에 1군 무대를 밟은 백용환은 4일 가장 바쁜 선수였다. 지난해 무릎 부상으로 고전했던 백용환은 7월 1일 엔트리에서 말소된 뒤 자취를 감췄다. 재활을 하느라 스프링 캠프에도 참가하지 못했던 백용환은 최근 퓨처스리그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이면서 4일 엔트리에 등록됐다. 박홍식 감독 대행은 "오른쪽 타자가 없어서 백용환을 불렀다. 퓨처스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백용환의 복귀에 대해 설명했다. 한방 있는 우타자로 기회를 얻은 백용환은 "말 할 시간도 없다"며 등록 첫날 바쁘게 경기장을 오가며 훈련을 소화했다.

▲진짜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 홍건희의 승리가 누구보다 간절한 포수 신범수다. 신범수는 지난 5월 10일 시즌 첫 선발 출장에 나서 투수 홍건희와 배터리를 이뤘다. 하지만 실수 연발로 아쉬움이 남았다. 다시 홍건희와 호흡을 맞췄던 5월 22일 그만큼 신범수의 각오는 남달랐다. 신범수는 이날 데뷔 홈런에 이어 멀티 홈런까지 기록했지만

경기가 연장 10회 한승택의 끝내기 안타로 마무리되면서 홍건희의 승리는 쟁겨주지 못했다. 그리고 6월 2일 다시 두 사람이 배터리를 이뤘지만 이번에는 홍건희의 등판이 4.1이닝에서 끝나고 말았다. 신범수는 "진짜 견희형의 승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초반에 삼진도 많이 나오고, 견희형도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았다. 나도 막힘없이 사인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느슨해졌다.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해야 했는데 그게 아쉬웠다"고 앞선 경기를 돌아봤다.

▲초심오 = KIA는 뜨거웠던 7연승 이후 3승 3패로 지난 한 주를 마감했다. 연승 기간 만난 팀들보다 더 까다로운 한화, 키움과의 대결. 여기에 올 시즌 내내 KIA를 흔들고 있는 타격 기복이 문제였다. 두산, NC라는 강적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된 박홍식 감독 대행은 4일 두산과의 경기에 앞서 "특정력에서 타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불펜 쪽은 좋은 상태니까 타자들이 더 분발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주 나도 미숙하게 서둘렀던 부분이 있었다. 초심으로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적들을 맞는 소감을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메이저 퀸’ 2연승 도전

이정은, 7일 슐라이트 클래식 출전...상금·신인상 부문 선두

'메이저 퀸' 이정은(23)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2연승에 도전한다.

3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끝난 제74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이정은은 슌 톨릴 톨도 없이 7일 개막하는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한다.

이정은이 2연승에 도전하는 대회는 7일부터 사흘간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시부 호텔 앤 골프클럽 베이코스(파71·6217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슐라이트 클래식(총상금 175만달

리)이다. 2019시즌 LPGA 투어에서 54홀, 3라운드 우승자를 정하는 3개 대회 중 하나다.

올해 LPGA 투어 54홀 대회는 슐라이트 클래식과 이달 말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11월 토트 저팬 클래식까지 3개다.

US오픈 우승으로 상금과 신인상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게 된 이정은은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부문에서도 1위를 넘본다. 현재 올해의 선수 부문은 지난해 신인상 수상자 고진영(24)이 129점으로 1위, 이정은은 83점으로 2위다. /연합뉴스

